

한의학문제풀이(38회)

01. ②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은 <의학입문>
02. ② <제중신편>은 강명길 / 약성가는 <의종손익>의 부록 / 최초 운기학은 윤동리의 <초창결> / <소문대요>는 이규준
03. ④
04. ①
05. ① 心主臭 ... 入肝爲臊臭
06. ③ / ①=呼 ②=歌 ④=笑 ⑤=呻
07. ⑤ 사지주슬 이하
08. ④
09. ③
10. ①
11. ⑤
12. ④
13. ②
14. ④ 痛 X
15. ②
16. ③
17. ⑤
18. ① 自小腸下口 泌別清濁 水液入膀胱上口 滓穢入大腸上口 <동의보감 中>
19. ② 邪正相持: 疾病過程中 正氣不甚虛弱 邪氣亦不過強 邪正勢均力敵 相持不下
20. ③ '大腸主津'
21. ④ 味過于酸 肝氣以津 脾氣乃絕
22. ⑤ / ① ④는 경별, ③ 經脈分支=락맥, 正經 부족함 補充=경별 ②는 손락
23. ① 血警則水也 氣警則風也 風行水上有血氣之象焉 盖氣者 血之帥也
氣行則血行 氣止則血止 氣溫則血滑 氣寒則血澁 <東醫寶鑑·血>
24. ③ 해당 문장은 조현가의 '의관'
25. ③
26. ②
27. ① a. 결막, 각막 / b. 방수 / c. 홍채
d. 수정체 / e. 유리체
神水: 현대 해부학적 방수에 해당한다.

28. ①
29. 牢脈
30. ①
31. 薛己
32. ⑤ ※溫病學 發展史
①劉完素: 傷寒을 熱病으로 認識
②馬宗素: '六經傳變皆熱證'을 闡發
③吳有性: <溫疫論> 瘟疫과 傷寒을 分別
④戴天章: <廣溫疫論> 著述 汗下清和補總結
⑤餘師愚: 瘟疫을 運氣의 陰熱로 看做
⑥葉桂: 清代 營衛氣血說 <溫熱論>
⑦薛雪: 濕熱辨證과 治法을 밝힘
⑧吳瑭: <溫病條辨>에서 三焦辨證을 主張
⑨王孟英: <溫熱經緯> 著述
33. ① 咽喉者 水穀之道也. 口脣者 音聲之扇也.
舌者 音聲之機也. 懸雍垂者 音聲之關也.
頄顙者 分氣之所泄也.
34. ③
35. ①
36. 厥陰
37. ③
38. ④ 數轉筋十指爪甲皆痛爲筋極: 자주 근이 뒤틀리고 열 손가락의 손톱이 모두 아픈 것은 근극이다.
牙齒動手足痛不能久立爲骨極: 치아가 흔들리고 손발이 아프며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하는 것은 골극이다.
面無血色頭髮墮落爲血極: 얼굴에 혈색이 없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혈극이다.
身上往往如鼠走體上乾黑爲肉極: 몸에 왕왕 쥐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피부가 건조하고 검게 되는 것은 육극이다.
氣少無力身無膏澤翕翕羸瘦 眼無精光立不能定身體苦痒搔之生瘡此爲精極: 기운이 없고 몸에 윤기가 없으며, 비쩍 마르고 눈에 정기가 없으며,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몸이 몹시 가려워 긁으면 창이 생기는 것은 정극이다.
胸脇逆滿恒欲大怒氣少不能言此爲氣極: 가슴과 옆구리가 더부룩하고 늘 몹시 성내려고 하며, 기운이 없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기극이다.
39. ①
40. ② 少陰人 太陽病厥陰證